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한국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간 관계

윤혜미 · 김용석 · 장승옥 *

청소년기의 음주는 정상적인 발달과업과 안전 및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타 약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비행과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건전한 인격체로의 발달을 위해서는 이들의 음주실태를 파악하고 음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첫째, 전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 1,697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음주행위와 음주문제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청소년의 음주와 이들이 음주효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은 성별과 학교계열을 배경변인으로 하여 교차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RAPI로 측정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알코올로 인한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으나 남학생의 87.6%, 여학생의 83.3%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마실 경우 폭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음주빈도, 취한 빈도, 음주량, 음주로 인한 문제 등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그리고 실업고 학생비율이 인문고 학생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빈도, 음주량, 폭음 및 음주문제와 같은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음주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 윤혜미(충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김용석(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장승옥(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조교수)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술을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며 음주로 인한 문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하고 있었고 실업고 학생의 음주의 사교적 기능과 공격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치가 인문고 학생보다 더 높았다. 조사결과는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개입방법으로 음주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수정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에 관한 더욱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청소년비행 가운데 음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알코올은 청소년이 관련된 폭력이나 사고의 배경변인으로 꾸준히 관찰되고 있으며 청소년 약물남용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먼저 사용되는 물질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약물남용 청소년들은 그들의 약물남용이 술 → 담배 → 흡입제나 향정신성 약물의 순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인정하고 있으나(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문화체육부, 1994) 청소년 음주는 다른 문제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다. 이는 알코올이 갖고 있는 양면성(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과 우리 사회의 음주에 대해 관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의 영향일 수 있다.

청소년 음주가 비행의 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생활에서 음주경험은 상당히 보편화, 일상화된 현상으로 관찰된다. 1997년 통과된 “청소년보호법”이 18세 미만(1999년 7월 1일부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기 전까지 음주는 별다른 여과없이 이들의 생활에 받아들여졌다. 진학과 관련된 압제적인 교육체계와 성장기의 ‘반문화적’(김정오, 1999:168) 심리 특성 그리고 음주에 대해 특별히 관대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합작한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의 생활세계의 황폐성에 대한 일부 성인들의 연민은 이들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거나 ‘교정’하기보다 ‘이해’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에서도 소풍, 수학여행, 수련회 등의 행사시 학생들의 음주가 거의 묵인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고등학교에는 ‘천일주’나 ‘백일주’니 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고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

은 탈출구로 알코올의 긍정적이고 미술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그 결과 대다수 학생들이 정확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되어 음주자 비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문제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역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1) 미성년자의 음주를 금하는 까닭은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영향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에게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여 신체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합리적 사고와 판단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음주는 음주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독성화(intoxication)가 쉽게 일어나고 다른 약물(담배, 본드, 부탄가스, 마약)의 사용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이후의 음주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Blanken, 1993; James et al., 1996). 또 음주를 일찍 시작할수록 음주량이 증가해서 음주와 관련된 문제, 폭력이나 인간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Hanson, 1996). 최근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의 음주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특별한 주의와 교육이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Hanson, 1996).

건전한 인격체로의 발달을 해치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하고 건강과 관련된 습관이나 행동의 결정에 긍정적인 개입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음주상태를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음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요청된다. 그 중에서도 이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에 기반을 두고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에서 관찰되는 조사대상이 지역적으로 한정되거나 특정한 인구집단에 국한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음주문제의 경향과 정도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기초하여 고등학생들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술을 마시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가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 경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1) 미성년자의 음주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중 가장 흔한 것은 연령제한인데 음주허용연령을 보면 미국 21세, 일본 20세, 캐나다 19세 이후이며 북미보다 허용적인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보호자의 동행여부와 알코올 함량에 따라 14~18세로 세분화되어 있다.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요인을 청소년 음주예방의 중요한 변인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음주실태와 관련된 선행연구

지금까지 실시된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이 알코올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청소년 700명과 약물남용자 수용시설과 소년원에 있는 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체육부(1994)의 청소년 약물사용 실태조사는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이 전체의 72.1%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46.3%)보다 훨씬 높았으며 가장 먼저 사용한 약물이 알코올(44.1%), 담배(22.5%) 순서임을 밝히고 있어 알코올이 'gateway drug'(통로약물: 다른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약물을 말함)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8)는 1만여명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의 74.4%가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약물사용 청소년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의 약물사용경험을 단순경험과 남용경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단순경험은 평생에 단 한번이라도 약물을 사용한 경험의 유무를 말하며 남용경험은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정의하였고 특히 술과 담배의 남용은 현재의 사용여부로 정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조사대상자의 단순음주경험은 66.3%로 나타났고 술을 남용한 청소년의 비율은 24.1%로 나타나 상당수의 청소년이 단순히 음주를 경험하는 수준을 넘어 음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의 단순경험(33.1%)과 남용경험 모두 흡연의 단순경험과 남용경험(10.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외국의 자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흡연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64%)보다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90%) 상당히 높다고(Johnston et al., 1991, 재인용 USDHHS, 1993) 보고되고 있다.

음주경험유무 이외에 기존 조사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에서 음주를 경험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으며(한국청소년학회, 1993), 일반청소년보다 비행청소년의 음주비율이 상당히 높고(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성별에 따른 음주경험비율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기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에서 음주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 실태조사(문화체육부, 199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음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실태를 대표할 만한 조사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알코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음주를 다른 약물 사용실태조사의 일부분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알코올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약물임을 볼 때 청소년음주만을 깊이 있게 다루어 이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2) 음주행위와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청소년의 음주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음주의 유전적 원인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알코올중독부모를 둔 자녀가 정상음주자를 부모로 둔 자녀보다 알코올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가족연구(*family studies*), 알코올중독자의 자녀가 입양되어 정상음주를 하는 양부모 밑에서 성장하여도 알코올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양연구(*adoption studies*), 알코올중독자가 부모인 경우,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가 알코올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쌍생아 연구(*twin studies*) 모두 알코올중독의 유전적 원인을 지지하는 연구들이다(Cloninger, 1981; Goodwin et al., 1973; Sigvardsson et al., 1996).

각 사회의 음주문화 또는 음주규범이 사회구성원의 음주습관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사회-문화적 이론에 의하면 음주에 대해 엄격한 문화권보다 우리나라와 같이 음주에 대해 관대하고 허용적인 문화권에서 알코올중독자 비율이 높다. 예를 들면 자녀에게 술심부름을 시키거나 가족행사시에 자녀의 음주를 허용하는 것이 음주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음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으로 자주 언급

되는 것으로 가족(부모)과 또래집단을 들 수 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ospitals(USDHHS), 1993). 가족과 부모의 영향 이외에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 관계가 청소년이 갖는 사회관계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는 청소년의 행동과 사고패턴의 형성에 친구집단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캔들 등(Kandel et al. 1987, 재인용 USDHHS, 1993)은 청소년음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것이 또래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주를 하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친구가 음주를 하거나 음주에 대한 태도 또한 동일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선행연구는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유전적 이론과 사회-문화적 이론이 청소년음주의 원인을 밝히는 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순히 부모가 알코올중독자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음주를 하고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다거나 또는 음주문화, 음주와 관련된 또래 압력, 적절하지 못한 가족관계 때문에 청소년이 음주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청소년이 음주를 결정하는지 또는 음주행위가 학습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기에는 부족하다(Smith & Goldman, 1995).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과 남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들의 알코올문제 예방에 적합한 관점으로 최근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알코올 연구에서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을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기대이론은 기억에 기초한 인지적 학습이론(*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이라 할 수 있다(Bandura, 1977). 간단히 말하면 어떤 행위에 대해 특정 결과가 연관되어 있다는 반복된 인식이 행위와 결과의 관계를 기대라는 형태의 기억으로 저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장된 연관성이 미래의 행동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고 보상을 받게 되는 행위를 할 개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대형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개인의 경험, 즉 음주와 음주결과와의 관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며, 개인의 음주 경험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하며 알코올을 남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Bandura(1977)는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이외에도 모델링, 설득(*social or verbal persuasion*) 그리고 개인의 생리적 상태가 기대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지적 사회학습모델을 음주행위에 적용하면(Abrams et al., 1987)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개인의 음주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대(*expectancy*)란 특정 행동에 대한 특정 결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Smith & Goldman, 1995)이라고 정의되며, 태도, 신념, 속성(*attribu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다(Goldman et al., 1987). 음주와 관련해서 기대를 적용하여 보면 술을 마시는 행동은 긴장이 풀어진다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관계를 개인이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주의 효과에 대한 연상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의 음주행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며 음주로 인한 경험이 긍정적인 강화로 인식한 개인은 그 행동을 더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Smith & Goldman, 1995).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청소년들의 음주행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Christiansen & Goldman, 1983; Brown et al., 1987). 기대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청소년기에는 모델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델링이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특정 행동이 학습된다는 것인데(Abrams et al., 1987) 이를 청소년의 음주행위와 연결시켜 보면 아동이나 청소년은 부모, 친구 또는 자신이 동일시하고 싶은 인물이 음주를 하고 음주후 그들이 경험하는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음주에 대한 기대형성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청소년이 음주와 음주의 결과와의 관계를 직접 경험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음주를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기대가 모델링을 통해 이미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Smith & Goldman, 1995; USDHHS, 1993).

기대가 음주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는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잘 밝혀지고 있는데 Smith & Goldman(1995)은 음주를 하지 않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에 대한 기대가 청소년 음주를 예측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종단연구를 한 결과 1년 후의 예측력은 69% 그리고 2년 후의 예측력은 65%로 상당히 높았고(예측력이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것임) 기대가 청소년음주를 예측하는 능력은 가족변인의 예측력(28%, 27%)보다 훨씬 높았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알코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알코올의 소비량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는가를 예측하게 한다는 결과는 Leigh(1987)의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Evans et al. (1995)의 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음주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주하는 청소년과 호기심으로 음주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간의 음주에 대한 태도(기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한두 차례 음주를 경험한 청소년보다 음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음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쿠퍼 등(Cooper et al., 1992)의 연구에서도 음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는 음주와 개인이 경험하는 음주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미스 등의 연구(1995)와 마찬가지로 두 변인간의 관계가 여성보다 남성 사이에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관계없이 음주의 기대는 음주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주의 기대로 사회적, 신체적 이완은 모든 음주자들이 경험하는 사실이며 과음을 하는 사람들은 성적 행위와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기대도 높다는 사실도 발견되고 있다(Leigh, 1987).

요약하면 알코올 기대이론은 알코올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음주행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음주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좀더 긍정적인 초기 음주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좀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Goldman, Brown, & Christiansen, 1987; Smith & Goldman, 199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음주의 효과에 관한 기대가 그들의 음주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명해보기로 한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표집

전국 7개 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을 성별, 학년별, 지역별, 계열별로 층화표집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 사이로 설문지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각 학교에 직접 배달하고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및 측정

이 조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적 배경, 음주행위, 음주문제 및 알코올의 효과에 관한 기대에 관련된 문항이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 성별, 학교분류(인문계와 실업계)가 중요한 배경변인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외에 조사도구는 조사대상자의 종교, 주거상황²⁾ 등을 포함하였다.

음주행위 : 다양한 방식으로 음주행위를 측정하여 비교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알코올 사용빈도, 일년간 숙취(*drunkenness*)를 경험한 빈도, 한 달간의 음주량, 폭음(한번에 5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³⁾의 유무 그리고 음주와 관련된 문제행위의 유무가 조사되었다. 한 달간의 음주량은 지난 한달동안 마신 모든 술의 종류와 잔 수를 기입하도록 하여 총량을 합하여 한 달간 마신 알코올의 양을 측정하였다.

음주문제 : 음주로 인한 문제는 12세부터 21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Rutgers Alcohol Problem Index(RAPI)를 사용하였다. RAPI 척도는 23문항의 자기기입식 알코올 관련 문제를 측정하는 척도로 내적인 일치도(.92)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White et al., 1989). 이 RAPI 척도 중 우리 상황에 맞는 18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문항은 원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있다', '없다'만 구분하여 문제가 한번이라도 있었던 경우(1점)와 한번도 없었던 경우(0점)로 나누어 문제의 유무만을 살펴보았다. 수정된 RAPI의 신뢰도는 .81로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다.

음주 효과에 대한 기대 :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의 효과나 음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음주자가 갖는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크리스찬센 등(Christiansen et al., 1989)의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알코올 기대 설문-청소년 유형(AEQ-A)은 12세부터 19세의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척도로 9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 음주유형을 예측하는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어 왔다(Christiansen et al., 1989). 이 연구에서는 AEQ-A 중 우선 우리나라 청

2) 종교변수와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 변수들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주거상황 변수는 응답범주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분석에서 제외되었다.

3) 이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정한 기준이며,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다르지만 고도주는 작은 잔에, 알코올 함량이 낮은 술은 큰 잔에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한 잔에 포함된 알코올 함량은 거의 같다고 보고 있다.

소년에게 적합하다고 보이는 문항을 20문항을 선별하고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통해 최종 15문항이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사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음).

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음주행위(음주빈도, 음주 양, 폭음 등)와 배경변인(성, 학교계열)에 따른 음주행위와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를 분석하였고,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 음주행위, 음주문제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활용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조사에 참여한 총 1,697명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55.3%를 차지하여 여학생보다 약간 많았고 지역별로는 부산지역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구분	N(%)
성	남학생	912(55.3)	학년	1학년	555(33.8)
	여학생	738(44.7)		2학년	556(33.9)
지역	서울	325(19.4)		3학년	530(32.3)
	부산	386(23.0)	계열	인문계	982(58.5)
	대구	182(10.8)		실업계	697(41.5)
	인천	203(12.1)	종교	불교	413(25.1)
	대전	199(11.7)		기독교	451(27.4)
	광주	187(11.1)		카톨릭	132(8.0)
	울산	197(11.7)		기타	31(1.9)
		무		620(37.6)	

이 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서울로 19.4%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지역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년별로도 조사대상자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2) 고등학생의 음주행위

〈표 2〉는 고등학생의 음주경험유무에 관한 결과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조사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대부분이 음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점까지 한 번이라도 음주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5.7%로 나타났고 한 번도 음주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3%로 매우 낮았다. 성에 따른 음주경험유무는 남학생이(87.6%) 여학생(83.3%)보다 음주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계열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3〉은 조사대상자의 최초 음주시기에 관한 결과이다. 최초 음주시기를 중학교 2, 3학년 때라고 응답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46.7%를 차지하여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음주를 시작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고등학생들의 음주가 일찍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음주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25.7%나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음주경험유무

	예 N(%)	아니오 N(%)	χ^2
전체	1436 (85.7)	240 (14.3)	
성			6.09*
남학생	799 (87.6)	113 (12.4)	
여학생	615 (83.3)	123 (16.7)	
계열			0.07
인문계	837 (85.5)	142 (14.5)	
실업계	599 (85.9)	98 (14.1)	

* $p < 0.05$

〈표 3〉 최초 음주시기

	N	%
초등학교 졸업 이전	369	25.7
중학교 1학년	119	8.3
중학교 2학년	342	23.8
중학교 3학년	328	22.9
고등학교 1학년	209	14.6
고등학교 2학년	59	4.1
고등학교 3학년	8	0.6

〈표 4〉 음주이유

음주 이유	N	%
제사, 명절, 생일 등	549	38.4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490	34.1
친구가 권해서	112	7.8
호기심 때문에	138	9.7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어서	7	0.5
기타	136	9.5

음주이유에 대한 결과(〈표 4〉)를 보면 조사대상자가 최초로 음주한 이유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사, 명절, 생일과 같은 가족행사를 들고 있는데 부모나 친척이 가족행사시에 자녀의 음주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음주행위를 측정하는 모든 변수에서 남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준다(〈표 5〉). 음주빈도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 반수 이상이 일년에 1회~11회 사이의 음주를 하며,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술을 마시지 않은 학생은 여성이 24.8%, 남성이 17.5%로 여성이 높고 음주빈도가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한 빈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빈도가 높아질수록 남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며 남학생의 1/3, 여학생의 반수 정도가 취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적은 수이지만 일주일에 1번 이상 술에 취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시급한 도움이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지난 한 달간의 음주량을 기준으로 분류한 음주의 유형을 보면 남학생의 56.2%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29.7%는 15잔 미만을 14.1%는 15잔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응답하였다. 여학생의 63%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30%는 15잔 미만을 6.4%는 15잔 이상을 마셨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남녀 고등학생들은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음주량이 많아질수록 남녀의 차이는 커진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5잔 이상의 음주경험은 청소년들의 과도한 음주를 드러내는 척도로 종종 조사된다. 지난 한 달 동안 한자리에서 5잔 이상의 음주를 한 횟수를 통해 경험의 유무를 측정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났다. 남학생의 43.1%가 5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도 19.2%가 폭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음주 빈도와 비교하여 보면 비록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지만 술을 마실 경우에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수로서의 인문고와 실업고라는 학교 계열은 고교생들의 모든 음주행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표 6>에 나타난 학교별 음주행위 실태를 보면 먼저 음주빈도에서

<표 5> 성별 음주행위

음주행위		성별	남학생 (912명) N (%)	여학생 (738명) N (%)
음주빈도 $\chi^2=36.47^{***}$	1주에 1회 이상		67 (7.3)	31 (4.2)
	1달에 1회 이상		190 (20.8)	90 (12.2)
	1년에 1회 이상		496 (54.3)	434 (58.8)
	마신 적 없음		169 (17.5)	183 (24.8)
취한 빈도 $\chi^2=44.48^{***}$	1주에 1회 이상		33 (3.6)	10 (1.4)
	1달에 1회 이상		50 (5.5)	39 (5.3)
	1년에 1회 이상		524 (57.5)	330 (44.7)
	취한적 없음		305 (33.4)	359 (48.6)
한달간 음주량 $\chi^2=26.38^{***}$	비음주자		513 (56.2)	465 (63.0)
	15잔 미만		271 (29.7)	226 (30.6)
	15잔 이상		129 (14.1)	47 (6.4)
5잔이상 음주 경험 $\chi^2=59.12^{***}$	없다		601 (65.8)	610 (82.7)
	있다		311 (34.2)	128 (17.3)

*** $p < .001$, ** $p < .01$, * $p < .05$

인문고 59.8%, 실업고 51.0%의 학생이 일년에 1~11회 정도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한 달에 한번 미만의 음주가 대부분이지만 한 달에 한번 이상 술을 마시는 학생비율(인문고 14.8%, 실업고 19.8%)이나 1주에 한번 이상 마시는 학생의 비율은 실업고가 8.5%로 인문고의 4.1%의 두배 가까이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잦은 음주를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한달간 음주량도 인문계 고등학생의 67%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실업계 학생은 48.7%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15잔 이상의 술을 마신 집단은 인문계가 6.7%, 실업계가 15.8%로 나타났다. 또한 1주에 1회 이상 술에 취하는 학생은 실업계 고교(4.7%, 인문계 1.1%)에서 높았으며, 한 번에 5잔 이상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실업계 53%, 인문계 36%)도 실업계가 높아, 실업계 고등학생이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알코올로 인한 위험요인이 높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표 6> 학교계열별 음주행위

음주행위		학교별	인문고 (982명)	실업고 (697명)
			N(%)	N(%)
음주빈도 $\chi^2=25.01^{***}$	1주에 1회 이상		40 (4.1)	59 (8.5)
	1달에 1회 이상		145 (14.8)	138 (19.8)
	1년에 1회 이상		587 (59.8)	356 (51.0)
	마신 적이 없다		210 (21.4)	145 (20.8)
취한 빈도 $\chi^2=32.55^{***}$	1주에 1회 이상		11 (1.1)	33 (4.7)
	1달에 1회 이상		45 (4.6)	45 (6.4)
	1년에 1회 이상		491 (50.0)	375 (53.7)
	취한 적이 없다		435 (44.3)	245 (35.1)
한달간 음주량 $\chi^2=68.48^{***}$	비음주자		662 (67.4)	340 (48.7)
	15잔 미만		254 (25.9)	248 (35.5)
	15잔 이상		66 (6.7)	110 (15.8)
5잔 이상 음주 경험 $\chi^2=32.18^{***}$	없다		773 (78.7)	463 (66.3)
	있다		209 (21.3)	235 (33.7)

*** p<.001, ** p<.01, * p<.05

3) 음주로 인해서 경험한 문제

〈표 7〉은 지난 1년간 조사대상자가 음주로 인해 경험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표 7〉을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음주를 조절하기 위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술을 마셨다”(36.5%), “다른 사람을 황당하게 하거나 무안하게 했다”(24%), “술값을 너무 써서 다른 것을 살 수가 없었다”(21%)는 순으로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였음을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고등학생들이 음주로 인해 경험한 문제 중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for Mental Disorder IV의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 기준에 해당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 매우 충격적이다. 내성과 금단증상이 알코올 의존의 진단기준에 포함되는데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그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처럼 내성을 경험한 경우가 10.6%, “술을 줄이거나 끊어서 금단증상, 예를 들어 몸이 아픈 것을 느꼈다”와 같은 금단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6.1%로 나타났다. 음주로 인해 역할상의 문제나

〈표 7〉 음주로 인해 경험한 문제

내 용	있다(%)	순위
숙제나 시험공부를 할 수 없었다.	10.8	9
싸움에 끼여들거나, 나쁜 행동 또는 욕을 했다.	17.6	4
술값을 너무 많이 써서 다른 것을 살 수 없었다.	20.8	3
취한 채 학교에 갔다.	8.0	14
다른 사람을 황당하게 하거나 무안하게 했다.	24.1	2
자신의 책임을 부정했다.	11.5	8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그전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10.6	11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만 술을 마셨다.	36.2	1
술을 줄이거나 끊어서 금단증상, 예를 들어 몸이 아픈 것을 느꼈다.	6.1	17
성격이 변했음을 알게 되었다.	14.6	6
학교에서 일찍 조퇴했다.	4.3	18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10.6	11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7.1	14
갑자기 정신이 희미해지거나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16.0	5
친구와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졌다.	10.7	9
가족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졌다.	6.5	16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나 계속 마셨다.	13.5	7
친구, 주위사람들로부터 술을 줄이거나 끊으라는 말을 들었다.	9.8	13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은 알코올 남용 진단기준에 포함되는데 “숙제나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 일찍 조퇴했다”, “가족과 싸우거나 말다툼을 하고 나쁜 감정을 가졌다” 등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10.8%, 4.3%, 6.5%로 나타나 알코올 남용과 의존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학생들의 비율도 무시할 수 없는 정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청소년 음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청소년 음주 시작의 원인과 같은 청소년 음주의 초기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의 연구는 음주문제가 심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성별 음주문제(〈표 8〉)를 보면 알코올로 인한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55.4%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42%가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한 달간 15잔 이상의 술을 마셨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나 폭음의 경험이라고 응답한 남학생은 여학생의 두 배 가까이 나타난 반면(〈표 5〉) 남녀의 알코올로 인한 문제 경험의 차이는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다. 여학생의 폭음비율이 남학생 폭음자 비율의 1/2에 지나지 않음에도 음주로 인한 문제 경험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학생들이 자신의 음주에 대해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음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청소년에게도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학교 계열별로는 음주로 인한 문제(실업계 52.3%, 인문계 46.4%)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8〉 성별, 계열별 음주문제

		있다	없다
성별	남학생	55.4	44.6
	여학생	42.0	58.0
	chi square 값	5.60**	
계열별	인문계	46.4	53.6
	실업계	52.3	47.7
	chi square 값	29.39***	

** p<.01, *** p<.001

4)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

(1)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척도의 빈도분석 및 구성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는 종종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측하는 변수로 연구되었다.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는 음주를 시작하기 이전에 형성되며 청소년들의 성장배경 특히 음주의 사회화 과정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표 9>는 이 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다.

학생들이 음주효과로 가장 많이 지적한 문항은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78.9%),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74.8%),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진다”(74.4%), “모임을 더 재미있게 해준다”(70.8%)의 순으

〈표 9〉 음주 효과에 대한 기대척도의 빈도분석

내 용	그렇다 N (%)
미래가 밝고 희망차게 보인다.	94 (5.9)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더 쉬워지고 세상이 좋아 보인다.	678 (42.6)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623 (39.1)
모임을 더 재미있게 해준다.	1131 (70.8)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1180 (74.3)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다.	1023 (64.2)
이해력이 향상된다.	164 (10.3)
운동하면 더 잘할 수 있다.	85 (5.4)
주의집중이 더 잘된다.	55 (3.5)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522 (32.9)
더 로맨틱하게 느낀다.	554 (35.0)
성경험을 더 쉽고 즐겁게 해준다.	360 (22.9)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1256 (78.9)
깨뜨리고 부수고 싶은 기분이 든다.	519 (32.8)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740 (46.5)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내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631 (39.8)
싸움에 쉽게 끼여들게 한다.	794 (50.0)
자신이 좀더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539 (34.0)
느슨해지고 긴장이 풀어진다.	1185 (74.4)
자신 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준다.	298 (50.2)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오는 고민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준다.	709 (44.7)

로 응답하여 사교성의 측면과 공격성, 긴장이완의 기능을 대표적인 음주효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20개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개의 요인(사교성, 공격성, 인지적 또는 운동 기능의 향상, 성적기능의 증가, 긴장 해소)으로 나누어졌다. 5개의 요인별로 척도를 구성하여 내적 일치도(reliability)를 분석한 결과는 인지적 또는 운동적 기능 향상으로 명명한 척도를 제외한 4개의 척도는 바람직한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후의 분석에서는 4개의 척도가 활용되었으며 4개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표 10>에 제시되었다.

<표 10> 척도의 구성

변 수	항목 : 각 문항에 '그렇다' '아니다' 중 택일	cronbach alpha
사교성 향상 (sociability)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가 더 쉬워지고 세상이 좋아 보인다. 2.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 3. 모임을 더 재미있게 해준다. 4.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준다. 5. 사람들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해준다. 	.7919
성적 기능 향상 (sexual func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성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2. 더 로맨틱하게 느낀다. 3. 성경험을 더 쉽고 즐겁게 해준다. 	.7410
공격성 (aggressiveness)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람들이 통제력을 잃고,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2. 깨뜨리고 부수고 싶은 기분이 든다. 3.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 4.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내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5. 싸움에 쉽게 끼여들게 한다. 6. 자신이 좀더 강해지는 느낌이 든다. 	.7193
긴장감소 (tension reduc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신의 학교생활(성적, 교우관계, 선생님과 의 갈등)에서 오는 고민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해준다. 2. 자신문제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해준다. 	.7918
인지적 또는 운동기능 변화 (cognitive/ motor function)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래가 밝고 희망차게 보인다 2. 이해력이 향상된다. 3. 운동하면 더 잘할 수 있다. 4. 주의집중이 더 잘된다. 	.4546

〈표 11〉 배경변인에 따른 음주에 대한 기대 척도(평균값과 표준편차)

배경변인		음주에 대한 기대	사교성	공격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해소
성별	남학생		2.91±1.78	3.55±2.11	.96±1.15	.96±.90
	여학생		2.68±1.77	3.28±1.98	.76±1.02	.84±.91
	T값		2.73**	2.60**	3.75***	2.82**
학교별	인문고		2.86±1.77	3.50±2.01	.90±1.09	.88±.91
	실업고		3.52±1.50	3.63±1.86	1.10±1.16	.93±.90
	T값		2.29*	2.78**	1.81	.92

*** p<.001, ** p<.01, * p<.05

(2) 성과 계열에 따른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

〈표 11〉은 성별, 학교별 음주에 대한 기대 척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4가지 척도 모두에서 남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의 경우보다 사교성, 공격성, 성적 기능, 그리고 긴장 해소 모든 척도에서 술의 효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 변수는 사교성과 공격성의 척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가 인문계 고교의 학생보다 음주의 사교적 기능과 공격성에 대한 효과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 음주행위, 음주문제 간의 관계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음주행위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척도의 총점과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음주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표 12〉) 음주행위에 따른 기대척도의 하위척도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표 13〉). 음주행위에는 음주빈도, 음주 양, 폭음을 포함하고 있다.

〈표 12〉와 〈표 13〉은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가 음주유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하고 있다(Christiansen et al., 1989; Cooper et al., 1992; Evans et al., 1995; Smith et al., 1995). 즉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는 모든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빈도, 음주 양, 음주문제가 증가할수록 4개의 하위척도 평균값도 증가하고 있다. 음주량이 많을수록, 또한 폭음(5잔 이상 음주)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는 학생보다 4개의 음주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된 척도 모두에서

〈표 12〉 음주행위와 음주 효과에 대한 기대간의 상관관계

	기대	음주빈도	음주 양	폭음	음주문제
기대	1.00				
음주빈도	.18**	1.00			
음주 양	.19**	.54**	1.00		
폭음	.22**	.59**	.59**	1.00	
음주문제	.48**	.33**	.33**	.38**	1.00

** p<.01

〈표 13〉 음주행위에 따른 음주에 대한 기대척도 평균값과 표준편차

음주행위	음주에 대한 기대	사교성	공격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해소
	한달간 음주량	비음주자	2.41±1.81	3.35±2.14	.73±1.03
15잔 미만		3.02±1.70	3.19±1.99	.88±1.10	.95±.91
15잔 이상		3.85±1.38	4.11±1.782	1.48±1.20	1.24±.87
F값		54.85***	13.24***	37.46***	18.47***
5잔 이상 음주 경험	없다	2.35±1.79	3.37±2.12	.71±1.00	.7846±.89
	있다	3.72±1.46	3.63±1.96	1.25±1.19	1.16±.89
	T값	14.09***	2.23*	8.77***	7.89***
음주문제 유무	없다	2.05±1.76	3.15±2.23	.63±.97	.73±.88
	있다	3.52±1.50	3.63±1.86	1.10±1.16	1.08±.90
	T값	18.37***	4.75***	8.93***	7.85***

*** p<.001, ** p<.01, * p<.05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사교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해소의 세 척도에서는 음주량에 비례하여 평균값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공격성의 척도는 비음주자의 평균이 15잔 미만의 음주자 집단의 평균이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알코올로 인한 문제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알코올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사람들은 문제성 음주자인 경우가 많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지지한다(Leigh et al., 1987). 알코올에 대한 기대에 관한 더 정교한 연구는 청소년 음주문제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 언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사용행위는 보편적으로 어릴 때에 형성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예방이 가능한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발달을 지체시켜 성인기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음주에 대한 전국규모의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대처방법에 고심하고 있다. 청소년의 알코올 사용을 피하거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이 학교 및 지역사회의 공·사기관과 정부차원에서 개발, 실행되고 평가되면서 음주인구는 증가하되 음주문제는 감소하고 있다는 보고들을 볼 수 있다(Stoil et al., 1996; Hanson, 1996; Hibell et al., 1995).

반면 술에 관한 한 매우 허용적인 우리나라의 문화는 청소년 알코올 남용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18.6%가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주로 약물남용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고위험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수준에서만 보고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 음주는 고위험집단에게서만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서도 별 경계심없이 시도되고 있고, 또 다른 약물로의 통로약물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청소년들의 음주행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음주행위가 보편화·일상화되어 가는 고등학교시절에 초점을 두고 고교생들의 음주실태와 음주에 영향을 주는 원인의 하나로서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음주행위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고교생들의 음주행위가 알코올 자체에 대한 탐닉이기보다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상징적인 행위인 한(Lemert, 1962), 음주행위에 부여된 의미는 이를 해석하는 개인의 인지적인 도식에 의해 많은 부분 결정되므로(Johnson et al., 1992), 술을 마심으로써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청소년이 갖는 기대는 술을 마시려는 결단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고등학생의 대다수가 술을 마신 경험이 있으며(79.0%) 일부는 폭음의 경험이 있고(26.1%) 조사대상자의 10%에 달하는 학생은 지난 한달간 15잔 이상의 술을 마셨으며 48.6%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한가지 이상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 음주의 특성은 빈도보다는 술을 마실 경우 폭음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성(*gender*)과 학교계열이 고등학생 음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음주행위와 관련된 모든 변수(음주빈도, 취한 빈도, 한달간 음주량, 한번에 다섯잔 이상 음주경험, 음주문제 유무)에서 남녀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남학생 비음주자가 17.5%인 데 반해 여학생 비음주자는 24.8%로 약 7% 가량 적게 나타났고 취한 빈도나 음주량에서도 비슷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은 예상대로이지만 앞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그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주목할 만한 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계열도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 더 자주 마시고 취한 빈도도 높으며, 더 많이 마시는데 한달간 15잔 이상 이상 마신 학생의 비율(15.8%)은 인문계 고등학생들(6.7%)의 2배가 넘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한 번에 다섯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비율에서도 33.7%로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21.3%보다 높게 나타났고 음주문제 경험률도 52.3%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46.4%보다 많아 알코올로 인한 위험요인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알코올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비율은 남학생이 55.4%, 여학생이 42%였으며 전체의 10.6%는 내성을 경험하였고 금단증상을 경험한 비율도 6.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음주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가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성(*gender*)과 학교계열은 중요한 배경변인으로 드러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알코올의 긍정적인 효과로서 사교성, 공격성, 성적 기능강화, 긴장해소 등의 네가지 하위변인 모두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사교적 기능과 공격성에 대한 효과에서 인문계 고등학생들보다 알코올의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결과는 음주량이 많거나 폭음의 경험이 있고, 음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에 대한 기대는 청소년의 음주유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음주자일수록 알코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폭음의 경향이 많아 음주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줌으로

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알코올의 양면적인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청소년 음주문제 예방의 중요한 한 가지 접근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음주행위 및 음주문제와 관련된 사실과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성별과 학교유형이 고등학생의 음주유형 및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에 중요한 배경변인임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와 음주유형 사이에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발견들은 청소년의 음주결정에서는 인지적인 변화가 한 요인이 되며 사회적 동기가 청소년 음주 초기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청소년 음주예방과 음주문제에 대한 개입에서 음주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제공과 함께 음주효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문제 음주를 하지 않는 일반 학생과 이미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차별적 프로그램의 필요성, 인문계에 비해 빈도와 폭음률이 높은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필요성, 남학생보다는 낮으나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여학생 음주와 관련, 여성과 알코올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이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행동의 중요한 영향요인인 또래 집단 압력을 포함하여, 음주효과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 음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모델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정오. 1999. "1318의 질주." 박재환 편. 《술의 사회학》 한올아카데미.
- 문화체육부. 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마약없는 밝은 사회》 제13호.
- 한국청소년학회. 1993.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청소년의 약물남용실태에 관한 연구 : 술·담배를 중심으로》.
- Abrams, D. B. & R. S. Niaura.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edited by H. T. Blane & K. E. Leonard (pp. 131~178). NY: Guildford Pres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y. Rev.* 84. pp. 191~215.
- Brown, S. A., V. A. Creamer, & B. A. Stetson. 1987. "Adolescent Alcohol Expectancies in Relation to Personal and Parental Drinking Practic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6. pp. 117~121.
- Cloninger, C. R., M. Bohman, & S. Sigvardsson. 1981. "Inheritance of Alcohol Abuse." *Arch Gen Psychiatry.* 38. pp. 861~868.
- Cooper, M. L. et al. 1992. "Stress and Alcohol Use :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Coping, and Alcohol Expectanci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pp. 139~152.
- Christiansen, B. A. & M. S. Goldman. 1983. "Alcohol-related Expectancies versus Demographic/Background Variables in the Prediction of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pp. 249~258
- Christiansen, B. A., G. T. Smith, P. V. Roehling, & M. S. Goldman. 1989. "Using Alcohol Expectancies to Predict Adolescent Drinking Behavior After One Year." *J Consulting Psychol.* 57. pp. 93~99.
- Denton, R. E. & C. M. Kampfe. 1994.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ariables and Adolescent Substance Abuse : A Literature Review." *Adolescence.* 29(114). pp. 475~495.
- Evans, D. M. & N. J. Dunn. 1995. "Alcohol Expectancies, Coping Responses and Self Efficacy Judgments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Cooper et al.'s 1988 Study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pp. 186~193.
- Goldman, M. S., S. A. Brown, B. A. Christiansen. 1987. "Expectancy Theory : Thinking

- about Drinking.” in H. T. Blane & K. 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New York: Guilford. pp. 181~226.
- Goodwin, D. W. et al. 1973. “Alcohol Problems in Adoptees Raised Apart from Alcoholic Biological Parents.” *Arch Gen Psychiatry*. 28. pp. 238~243.
- Hanson, D. J. 1996. *Alcohol Education : What We Must Do*. Westport: Praeger.
- Hibell, Bjorn et al. 1997. 1995 ESPAD Report. Council of Europe Pompidou Group: CAN.
- James, W. H., D. D. Moore, & M. M. Gregersen. 1996. “Early Prevention of Alcohol and Other Drug Use Among Adolescents.” *J. Drug Education*. Vol. 26(2). pp. 131~142.
- Johnson, H. L. & P. B. Johnson. 1992. “Children’s Perceptions of Substance Abuse and Sexual Practices.” In *Health Education : Health educators and Teachers Collaborate*, edited by S. W. Pflaum. NY: NY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pp. 68~86.
- Leigh, B. C. 1987. “Beliefs about the Effects of Alcohol on Self and Others.” *J. Studies on Alcohol*. 48.
- Sigvardsson, S., M. Bohman, & C. R. Cloninger. 1996. “Replication of the Stockholm Adoption Study of Alcoholism.” *Arch Gen Psychiatry*. 53. pp. 681~687.
- Smith, G. T. & M. S. Goldman. 1995. “Alcohol Expectancy Theory and the Identification of High-risk Adolescents,” in G. M. Boyd et al. (eds.). *Alcohol Problems among Adolescent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pp. 85~104.
- Stoil, M. J. & G. Hill. 1996. *Preventing Substance Abuse : Interventions That Work*. NY: Plenum.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3. *Eighth Special Report to the U. S. Congress on Alcohol and Health*. Washington, D. C. : Supt. Doc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lcohol Expectancies in Relation to their Drinking Practices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Yoon, Hye-Mee (Chungbuk University)

Kim, Yong-Seok (Catholic University)

Jang, Seung-Ock (Keimyung University)

Despite the enforcement of minimum legal drinking age of 18 years of age since 1997, alcohol experimentation among Korean youth is believed to be greater than ever before. The use of alcohol jeopardizes physical, mental, and social development during a person's formative years, thereby endangering successful transitions from adolescent to adulthood. Even infrequent use of alcohol may result in intoxication and acute consequences, especially among youth, who may have low tolerance due to their smaller body size and may lack experience with the effects of alcohol.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collected from 1,697 highschool students nation-wide, the drinking behavior among Kore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alcohol expectancy and adolescent alcohol use patterns were examined.

Results indicated that gender and the type of school (academic or vocational) were significant effects on the drinking behavior (drinking frequency, experience of drunkenness, the amount of alcohol consumed, experience of binge drinking and that of problems due to drinking).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and students of vocational schools rather than those of academic high schools reported more alcohol experimentation. Also, positive alcohol expectancy proved to have a

significant relation with alcohol use among highschool students. That is, students who reported to think alcohol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socializing, aggressiveness, relaxation of tensions, and enforcing sexual ability tended to drink more, to experience more binge drinking and more drinking problems. Variables of gender and the type of school also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on alcohol expectancy. Males and students of vocational school held ideas of positive outcomes on drinking than others. Implications for further study on developing prevention programs are presented.